

■ 신간

도깨비와 춤을



한국 문단의 거목이자 한국 작가들의 스승 한승원의 신작 장편소설이다. “나는 살아 있는 한글을 쓰고, 글을 쓰는 한 살아 있을 것이다” 를 화두로 50년이 넘도록 치열하게 쓰면서 인생을 성찰해온 여든 노작가의 삶과 문학이 고스란히 응축되어 있다.

한승원은 이 작품에 자신의 정체성을 나누어 가진 쌍둥이 분신을 두 주인공으로 등장시킨다. 똑같이 79세로, 장흥에 사는 프로 작가 한승원과 남해에 사는 아마추어 음유시인 한승원이 그들이다. 한승원은 ‘장흥의 한승원’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 소설이 ‘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기’ 때문에 그들을 통해 “공작새 수컷이 암컷들과 세상을 향해 꼬리와 날개를 활짝 펴서 찬란한 무지갯빛 어린 문양을 과시할 때 치부인 향문도 노출하듯이” 스스로를 결산하고 치부까지 고백하면서 ‘자기 참모습’을 찾는 문학적 여정에 나선다. (인터넷교보문고 ‘책소개’ 중에서)

■ 한승원 지음 | 위즈덤하우스 펴냄 | 3000쪽

■ 영화



The House With A Clock In Its Walls

- 감독: 일라이 노스
- 출연: 잭 블랙(조나단 역), 케이트 블란쳇(Mrs. 짐머만 역), 오웬 바카로(루이스 역), 카일 맥라클란(아이삭 역), 로렌자 이조(루이스의 엄마 역), 서니 설직(타비 역), 르네 엘리즈 골드베리(셀레나 역)
- 러닝타임: 104분
- 등급: PG
- 개봉일: 9월 21일
- 장르: 판타지

[줄거리]

1955년 미국 미시간주. 부모를 잃은 조나단은 이상스러운 삼촌이자 행동과 마법사인 ‘조나단(잭 블랙) 그리고 더 이상스러운 이웃이자 엘리트 마법사인 ‘플로렌스(케이트 블란쳇) 아줌마와 생활하게 된다.

그런데 조나단의 집은 신기하게도 시계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. 그 집은 검은 마법에 생명을 바쳤던 이삭과 세레나 부부가 살았던 집으로 집의 벽 안쪽에는 시계가 세계의 종말을 가져오도록 설계되어 있는, 영원히 멈추지 않는 마법의시계가 숨어있다.

이에 세 사람은 모든 것이 살아 움직이는 집에서 세상의 운명이 걸린 마법시계를 찾아 나서는데……

미국 작가 존 벨레어스가 1973년에 발표한 동명의 소설을 일라이 로스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겼다.



물 좋고, 공기 좋고, 경치 좋은

엘림유황온천

수양관 & 리조트

만병을 물리치는 천하의 명약 천연유황온천
고산지대 암벽에서 나오는 미네랄 유황수



단체 환영

- 실내/외 온천과 수영장
- 120여명 이상 규모의 단체모임과 교회 수련회
- 캠핑을 위한 야영장/BBQ
- 가족용 병갈로우
- 야외부대시설



LA 또는 오렌지카운티 및 샌디에고에서 1시간반~2시간거리로 천연 미네랄 유황온천을 즐기세요~

Tel: 951-763-4939 Cel: 714-329-7766 48480 Foolish Pleasure Rd. Aguanga, CA 92536